

■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2017. 1. 24.)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3개 영역 11개 교육 공약을 제시합니다!

- ▲ 1월 24일(화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19대 대선 관련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1개 항목의 대선 공약을 제안함.
- ▲ 사교육비 지출액은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이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1인당 24.4만원)인 것으로 확인, 국민들의 ‘헬조선’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3개 영역의 11개 공약(△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학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4대 공약 △나쁜 사교육을 시급히 없앨 3대 공약 △학교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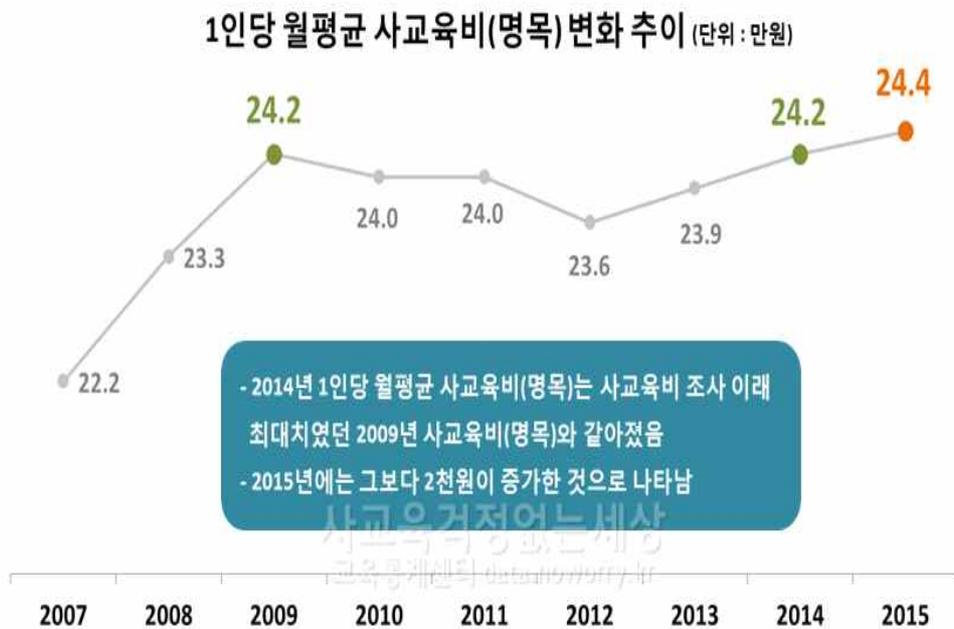
- **학교 서열화 완화 4대 공약** : △대학입학 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 △입시와 취업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1단계)고교 선지원- 후추첨 전면 도입 및 (2단계)고교체제 단순화
- **나쁜 사교육 금지 3대 공약** : △학원 휴일 휴무제 등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상품 판매 금지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4대 공약** :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 법제화 △학생의 (학습) 성장 평가제 법제화 △자유학년제, 중학교 전 학년과 고교로 확대 △수포자·영포자 걱정없는 학교교육

- ▲ 앞으로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각 캠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데이터로 상세 설명 가능함.
- ▲ 각 후보들의 공약이 확정된 후에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시민 평가단 활동을 전개하여 그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 알림으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지원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1월 24일(오전 11시)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대선 관련 ‘사교육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11대 대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자들은 현재 공약 개발에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창립 이후 대선 기간 때마다 여야 후보들의 교육 공약 속에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 좋은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해 제안하기도 했고, 이후 시민들과 함께 각 당의 후보들의 공약들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시민공약평가단’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단체는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1개 대선 공약 의제’를 준비해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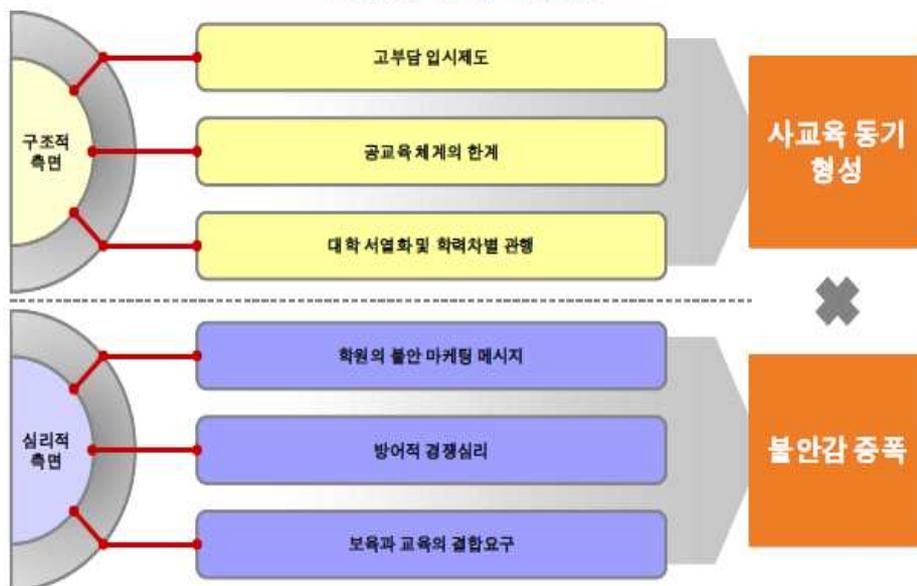
아시다시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액은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이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1인당 24.4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들의 ‘헬조선’ 사태 핵심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다는 절망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핵심은 ‘사교육비’ 부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꺾이긴 커녕 날로 증가 추세이니 나라의 위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자료: 교육부·통계청 사교육비조사(2015), 본 단체 교육통계센터 재구성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행교육 사교육 상품과 같이 해로운 사교육이 버젓이 아이들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각해, 중독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부모나 아이들이나 학업과 진로와 입시를 모색할 때 사교육을 고려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너도 나도 미래 사회 핵심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들 중 하나가 ‘자립심’이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OECD 2010년 보고서)이라는 말은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짓누르는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를 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단골로 사용하는 EBS 수능 방송 70% 연계 정책이나 학교 방과후 교실을 학원화하는 정부의 대책 등으로는 풀릴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핵심은,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 부담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있습니다. 사교육 부담의 문제는 ▲입시 환경과 대학체제, 취업시장의 상황 및 ▲학교 교육의 부실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사교육 기관의 나쁜 사교육 상품 판매 및 과장 홍보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증폭된 결과입니다.(아래 그림 참고) 그러므로 사교육 문제는 이런 제반 원인에 대한 종합적 처방을 내놓아야 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파악해도 그 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 3개 영역의 11대 사교육 공약 제시 : △제 1영역 : ‘학교 서열 해소’, △제 2영역 : ‘나쁜 사교육 해소’, △제 3영역 :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9년 동안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의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영역에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전개 해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성과와 활동을 총 정리해서 1월 24일 ‘사교육 근절 대선 공약’으로 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약은 크게 △‘입시 경쟁을 유발한 학교 서열화 완화 대책’, △‘나쁜 사교육을 시급히 해결할 대책’,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대책’ 등으로 나누고, 세 영역의 세부 공약을 모두 합해 11대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제 1영역 :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상급 학교 입시 경쟁이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상급 학교의 서열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차별이 심할수록,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은 커집니다. 물론 입시 경쟁의 부담이 커지더라도 그로 인해 학교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학교 서열구조는 그 구조에 안주하면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 ‘학교의 서열구조=교육의 질 전반적 하향’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학 체제의 서열구조의 해묵은 문제에 더하여, 요즘은 이제는 고교 체제조차 대학 체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고교 입시 경쟁으로 인한 중학교 사교육비(27.5만원)가 초등 사교육(23.1만원)은 물론이요 고등학교 사교육비(23.6만원)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학교들의 서열구조와 맞물려 취업 단계에서 이런 학교들의 서열구조를 반영하여 취업 준비생들을 차별하는 관행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성적 요구 없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에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는 매우 획기적인 대학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상생대학 네트워크**는 그런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들을 ‘가고 싶은 대학’, ‘대학교육의 질이 높은 대학’들로 만들어, 네트워크 바깥의 대학들에게도 건강한 긴장을 촉발하여 모든 대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또한 고교 체제의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나 학교 체제는 그대로 두고 먼저 **모든 고교 입시 제도를 선지원-후추첨**으로 전환하여 서열화 완화 효과를 기대하자는 것이고, 그로 인한 기반이 조성된 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교 체제를 간소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입시와 취업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은 그런 고교와 대학 서열체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서, 이 네 가지 공약이 실현되기만 하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 완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 분명합니다.

- **대학입학보장제**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입학이 허용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통해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는 현실을 개선합니다.
-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 대학입학보장제 참여 대학들(상생대학 네트워크)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질 높은 대학들로 만듭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게 됩니다.
-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 고교 입시를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며, 고교 체제도 대폭 단순화시킵니다.

■ 제 2영역 :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3대 공약

모든 사교육을 다 배척해야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 학교 교육의 부실이나 상급학교 입시 문제를 학교 자체가 해결해주지 못할 경우, 그 경쟁이 엄존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사교육으로부터 일시적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나쁜 사교육**의 문제입니다. 효과가 없어서 불필요하거나 혹은 해롭기까지 한 사교육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우리 학생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듯이 규제해야할 것입니다. 그 조치의 일환으로, 학원선행교육 상품 금지법을 통해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원에서도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두번째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중독의 문제**입니다. 즉, 나쁜 사교육이 아닐지라도 그 남용이나 의존도 정도가 너무 심해서 중독의 문제로까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학원 휴일 휴무제는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조기 교육, 한글 교육 등은 나쁜 사교육이면서 동시에 의존과 중독을 유발하는 더 심각한 나쁜 사교육입니다.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은 그런 의미에서 속히 제정이 필요합니다.

중독과 의존의 문제는 학원 휴일 휴무제나 영유아 인권법 등을 통해 해결될 문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 상황은 입시 사교육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그 위험의 임계점이 넘었기에, ‘사교육 전면 철폐 국민 투표’ 같은 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가장 최소한의 그리고 긴급한 조치부터 공약에 담아 시행한 후,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 전면 철폐 국민투표 같은 처방도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등** :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아이들의 쉼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홍보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 영유아 시기에 한글·영어 조기 교육 및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영유아 인권법’을 만듭니다.

■ 제 3영역 :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위한 4대 공약

상급학교 입시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학교

교육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교육 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은 곳, 아이들은 가고 싶은 곳으로 느끼도록 해주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운동 시합에서 같은 선수를 데리고도 지도자가 달라지니 성과가 확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별다른 돈을 쓰지 않아도 교장 한 사람만 잘 뽑을 제도만 마련되면, 학교 걱정 없는 세상은 80%가 달성되는 셈입니다. 지금은 포인트 점수만 따면 승진해서 교장 되는, 선진 사회 그 어디에도 없는 낡은 교장 임용 제도가 우리 학교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 공모제의 확대를 위한 법제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바늘 끝만큼 도입되어 지금 소수의 학교 교육이 엄청나게 좋아지자 학부모들이 앞 다투어 그 학교 근처로 이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할 대목입니다. ▲또한 학교 교실의 혁신을 위해 학생의 학습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전면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담한 목표를 세워야합니다. 이미 일부 교육청과 학교가 이런 시도를 함으로 학교가 달라지고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을 생각할 때, ‘학생 성장 평가제’ 같은 선진적인 제도 도입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마중물로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산하고, 중학교 전 학년을 넘어 고등학교로 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여 좋은 교장을 발굴합니다.
-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 메마른 객관식 점수와 등급 대신 학생의 학습 성장 기록을 담은 ‘학생 성장 평가제’를 법제화합니다.
- 자유학기제 → 중·고 자유학년제** :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바꾸어 중학교 전면 실시 및 고교로 확대하여 학교 교육을 쇄신합니다.
-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교육** : 수학·영어 관련 학교 안팎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교육을 실현합니다.

이런 공약은 지난 9년 동안, 우리 단체가 각 영역에 대한 사교육 실태 조사와 대안 모색 관련 300차 이상의 토론회 및 연구 조사 사업을 통해서 엄선하여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11가지 교육 공약이 우리 교육계에 도입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 고통은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1대 공약을 제시함에 있어서, 각 공약별 4쪽에 걸친 보다 상세한 제안서를 담았습니다.

또한 그 4쪽을 1쪽으로 간단하게 줄인 요약 자료도 마련했습니다. 4쪽에 걸친 제안서 외에 관련된 백업 자료는 별도로 방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선 후보 캠프 및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을 경우, 우리는 관련 내용들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관련 공약을 사회적으로 발표함과 동시에 각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을 제안하여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학교 걱정 없는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관련 공약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시민평가단을 구성, 공약 평가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1.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안상진(010-5533-2965)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 내선 502)